

# 정현복 광양시장, 현장행정의 날 가져

### 섬진강 뱃길복원·수상레저 현장 등 직접 찾아 정현복 시장 “현대에 맞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12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감·소통행정의 하나인 '2월 중 제1차 현장행정의 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현장(섬진강 뱃길복원을 위한 준설 현장, 짚외어 설치공사 현장) ▲진월 망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정 시장은 섬진강 뱃길복원을 위한 준설 현장을 둘러보고 공유수면 및 섬진강 하상을 준설하여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확보토록 지시하였다.

이어 섬진강 망덕포구와 배알도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짚 외어 설치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모험과 스릴을 체험할 수 있는 짚 외어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월 망덕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듣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가칭) 광양예술창고 건립추진 현장을 방문했다.

(가칭) 광양예술창고는 예전 양곡창고였던 폐창고를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공간으로, 전남도립미술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시기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현장을 둘러본 정 시장은 “기존보다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 아쉽다”며, “현대 사회에 맞는 즐기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면 좋겠고,

지역작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매월 2차례 시장이 직접 주요사업장, 민생 의견 수렴 현장, 중소기업체 등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 담양군, '농작물 일제 파쇄의 날' 지정 미세먼지·산불예방 저감 대책 일환

담양군이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이 시작되는 3월 말까지 농작물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한다.

고추대, 갯단, 과수 전정가지 등 농작업 뒤 발생한 영농 부산물을 태우면 미세먼지와 산불예방의 원인이 되지만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잘게 부순 뒤 휴갈이 작업 중 퇴비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별로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이며 마을 별 임대 기간은 1일이다.

잔가지 파쇄기 임대를 원하는 마을 대표는 사용 희망일을 정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지원팀(061-380-3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예방을 위해 노지 소각 자제와 영농부산물 퇴비화를 당부하고 농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곡성 청년챌린지마켓 입점희망자 모집

곡성군이 청년챌린지마켓 2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21일까지 입점희망자를 사전 모집하고 있다.

추가 조성하는 2개 점포는 곡성 세계장미축제 개최 전인 5월 중하순에 오픈한다는 목표다. 곡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4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곡성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군청 도시기재과(☎061-360-8355)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청년챌린지마켓은 지난해 곡성군 기차마을전통시장에 4개소로 조성됐다. 임대료는 월 3만 9천원으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을 도전해볼 수 있다. 현재 콘테이너를 개조한 13㎡ 면적의 작은 가게마다 먹거리를 판매하는 청년 창업가 4인의 꿈이 자라나고

있다.

청년들의 도전은 지역에도 생기를 불어넣었다. 지역민과 관광객들은 초밥, 소떡소떡, 치즈감자전, 해물라면 등의 저렴하고 간편한 먹거리를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어서 만족하는 반응이다.

곡성군은 올해 2개소를 추가 조성하는만큼 챌린지마켓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대표들 역시 끊임 없이 새 메뉴를 개발하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챌린지마켓 추가 조성을 통해 더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챌린지마켓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을 만들어가고, 전통시장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시립신대도서관의 이용자가 대출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신대도서관(061-749-4375)로 문의하면 된다.

## 창업 꿈꾸는 청년 '보성'에서 돕는다

### 창업자금 1천5백만 원 지원... 창업 Shop 프로젝트

보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인구 유출을 막고 활기 넘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보성 청년 창업 shop 프로젝트' 지원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가로 선정될 경우 창

업자금 1,5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창업전문교육, 경영심화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사후관리 등 창업 시작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 동행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성군으로 전입을 할 예정인 만39세 미만 청년이다.

'보성 청년 창업 Shop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며 보성군은 올해 7명의 청년창업가를 선발한다.

참여 희망자는 보성군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여 군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공동체(☎

850-5498)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발굴과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청년창업가 15명을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했다.

##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촉구

주중섬 여수시의원은 10일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진행 중인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진달래 축제 진행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시의원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198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하며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강제분할과 수용재결 조치를 중단하고 주민과 대화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공장 건설과 이후 안전한 가동을 위해서도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 순천시, AI 도서추천 서비스 도입

### 데이터 분석 이용자에 맞는 도서 추천 기능

순천시는 도서관 이용자 맞춤형 도서추천을 위해 순천시립신대도서관을 비롯한 8개소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도서추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도서추천 서비스는 인공지능(AI) 키오스크에 이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관심사, 기분 등을 입력하면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현재 상황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순천시립도서관 8개소에 설치된 인공지능(AI) 도서추천 서비스는 43인치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책 추천 서

스와 추천도서 세부정보와 대여 가능 여부도 즉시 확인해 주고 핸드폰 문자메시지(SMS)로 서가 위치도 알려준다.

이에 주민들이 맞춤형 도서추천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도서관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도서추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